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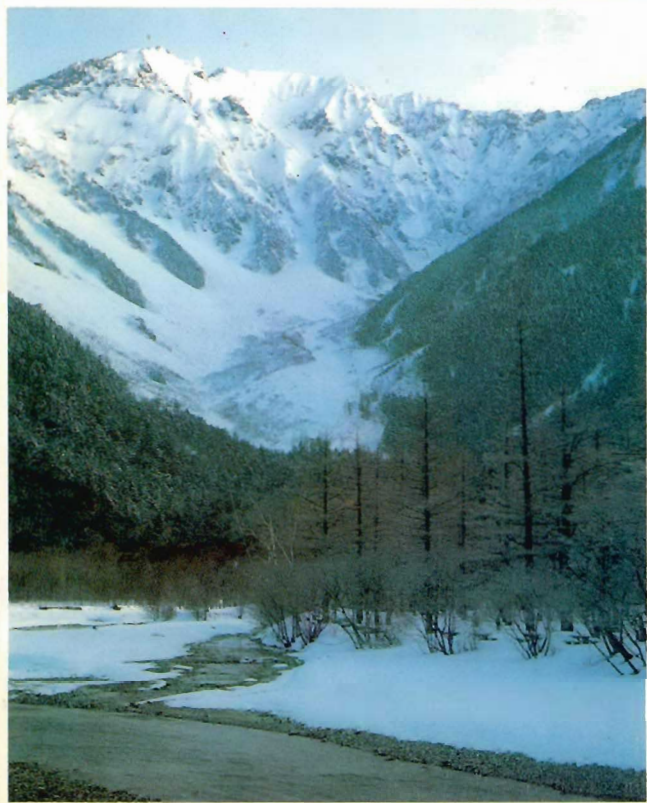
가정예배 안내서

1

1993

충현의 만나

새해 메시지
마가복음 15:22~16:20
신명기 1:1~9:29



대한예수교
장주회 충현교회

1월의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새해가 되도록
2.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목사님과 신성종 목사님의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교역자들의 헌신과 당회원들의
성령충만을 위하여
5. 제2오순절 역사로 인한 구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6. 민족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 지도록
7. 사랑과 섬김의 성도 생활이 되도록



충현의 만나

1993년 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1월호 집필을 위하여 조동원·한용관·성봉환

조운재·이종대·정광욱·장봉생 목사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 신명기 서론 *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세우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인용된 성경이기도 하다. 신명기의 주제는 언약의 갱신이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다. 그들이 겪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모세와 함께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새 세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모들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 시켜 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들과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헌신케 하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언약은 여호수아 당시(수24장) 세겜에서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도 갱신되었다.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받는 안식과 축복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경고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되었다. 새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1:2)

1993년 새해를 맞이하는 충현의 온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우리의 행동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거울은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밤낮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많이 맺는 축복을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주십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3년도 축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된 삶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와 의 손에 있음을 인식하고 금년 한 해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여호와와 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왕성하게 하옵소서. 새해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1:8)

본문은 다니엘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국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함으로 타국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름도 바뀌어서 살아야 하고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타국 포로생활입니다. 그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는 순간의 시작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진미는 먼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다가 왕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앞에 드려지는 부정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서 음식 먹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뜻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면 다른 모든 면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원로 김창인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12:2)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받았습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떠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란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땅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후손을 주신다는 말씀에, 셋째로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도/새해에 더 감사하며 주의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의 목양 사역에 철배의 영력을 주옵소서.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으니라』(15:2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최초로 십자가를 지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완전한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물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금 물어 보십시오. 우리의 허락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도록 강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세상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인 것을 잊지 맙시다.

▶ 기도/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새해에도 충현의 온 교우들의 가정에 축복하옵소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15:38)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년에 단 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다 이루었다”고 구원의 모든 것을 십자가 상에서 성취하심을 외치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벽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있었던 종교 계급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더 이상 아론의 가문과 레위의 후예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간의 구별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결코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며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종교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본문을 통해 성소의 갈라진 휘장의 의미를 이 시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갈라진 휘장 사이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나 묻고』(15:44)

본문의 말씀은 4복음서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간 후에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트릴까 염려 된다면서 빌라도에게 특별히 경계령을 허락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당신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증인으로써 항상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납니다.

▶기도/주의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16:6)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잊어 버렸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막14:28).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요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여인은 세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여인들의 행동이 너무나 고귀하고 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세 여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첫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실을 잊어 버린 결과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으로 계시지 않기에 향품을 바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이 걱정은 자신들의 준비는 끝냈으나 자신들의 한계를 넘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걱정입니다. 이 모든 걱정은 모두 다 주를 위한 걱정이며 실수이었습니다. 주를 위한 실수는 성경의 일부분을 장식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으면 다른 모습의 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우리는 실수없는 봉사가 있어야 겠습니다.

▶기도/올해는 실수없이 봉사하여 주의 교회에 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에게 충성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16:11)

슬퍼하며 울고있는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 귀신이 들려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신도 무덤을 찾는 실수를 범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며 우는 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 날 살아나신 예수님은 분명코 나타내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둘째, 막달라 마리아의 말, 즉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일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 중이나 하나님의 섭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당시의 죄로 물든 사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외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열매 주셨음을 감사해야겠습니다.

▶기도/올해는 저희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배가되게 하시며 저희 구역들은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배가되게 하옵소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16:15)

지난 해 충현교회에서는 ‘예수 사랑 큰잔치’를 베풀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교회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와 교육, 전도, 봉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입니다. 예배는 주일마다 혹은 주간 중에 시행됩니다. 교육은 각 교회학교가 맡아서 담당합니다. 우리의 봉사(혹은 교제)는 있는 처소에서 시행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교회의 특히 충현교회의 흠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배설함으로써 6면이었던 주보가 등록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입키 위해 8면의 주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명령하셨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올해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보고서를 올려 드려야겠습니다.

▶기도/주의 말씀 순종하여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되 성령충만으로 계속 이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 하시니라』(16:20)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리우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표적을 주시겠다고 아니고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 때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입니까?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입니까? 곤란한 일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위의 것들은 표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목적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적은 말씀 전파의 보조 수단입니다. 표적은 말씀보다 한두 단계 아래에 있습니다. 표적의 최종 목표는 확실한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 증거의 보조 수단들이 많습니다. 조직과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조직과 제도의 유지와 존립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모할 때도 있습니다.

올해는 진정 효과있는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쓸 수 있는 한해가 됩시다.

▶기도/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더 하시되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에게 함께하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1:5)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간 광야생활 후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 40년 동안에 다 죽었고, 광야 생활 중에 새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에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자신들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땅에서 그런 내용을 주욱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즉,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다”(3절)고 하였고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5절)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새해 1993년도에는 반드시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침식사 이전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봅시다.

▶기도/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하소서. 세계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주의 능력을 충만히 주소서.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1:13)

하나님의 귀한 종 모세는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9절)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관리)을 재능에 따라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들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올바르게 일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행정 처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짐을 나누어서 질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교인들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봉사하게 될 때 (성가대원, 교사, 구역 일꾼, 전도회 일꾼) 균형있게 부흥될 것입니다. 한 나라도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며 재능에 따라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될 때 질서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도 각각 할 일을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잘 해나갈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기도/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위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게 하소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1:33)

모세는 지나간 40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너무도 자상하게 보살피 주셨던 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30절). 그들은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아 주셨습니다(31절). 부모가 자식을 안아 주시는 것은 사랑의 표시요, 보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어 40년 간 계속 안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한 품이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가셨습니다(33절).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인도자가 있습니까?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33절). 절반만 인도하시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4시간 하루종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해 주면서 인도 하십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됩니다.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갑시다.

▶기도/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리이다. 각 교구위에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배가의 성장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느니라』(2:7)

하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40년 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는 복입니다. 지옥 갈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복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으며 노예살이 하는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찬송 시인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59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432장)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런 삶은 풍족한 삶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동행해 주시는 삶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부족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시는데 나 홀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가십시오

▶기도/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북한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내가 롯 자손에게 아를 기업으로 주었음으로라』(2:9)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과도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압은 롯의 큰 딸이 낳은 족속이고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족속인데, 그들은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후손들이기에 부끄러운 죄의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참작하여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 자손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 19:36, 38)

이와같이 기업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때나마 그것을 소유한 인간들은 마치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인 양 허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입김 한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지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 기업,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롯의 자손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업과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민족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가꾸고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로소 시혼과 그 땅을 네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2:31)

본래 시혼 왕국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차 공격 목표가 된 것은 그들에게 내재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시혼이 멸망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통과를 거부한 데 있지만 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까닭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광야에서 유리하며 자기 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 땅을 얻는 첫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비로소 시혼과 그 땅을 네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 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처럼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불평하던 백성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불순종하던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더 이상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기업을 가진 정착된 백성이 된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도/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고 주의 평화의 소리가 충만케 하소서.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3:3)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혼 왕국에 이어서 바산 왕국마저 정복한 기사입니다. 바산왕 옥은 르바임 거인족의 유일한 잔존자로 그 체구가 매우 장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바산 왕국은 이스라엘에 대적할 만큼 강대했고 또 요새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대한 바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헤스본에게 했던 것과 같이 바산 왕국을 진멸하고 요단 동편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가나안 땅 정복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철저한 시행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말 못하는 어린 것까지 진멸한 것은 너무 무자비 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에는 자비의 문이 닫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너무 컸고 그 자녀까지 물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면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소서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3:18)

본문은 요단강 동편 땅을 이스라엘 3지파에게 분배하고그들도 계속해서 정복전쟁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보증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드디어 이 약속의 실현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3지파에게 분배되고 이제 강 서편 정복을 위한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강 동편에 정착할 3지파가 선봉이 되어 함께 싸움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단결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단결은 전쟁에 있어 필수적인 정신이요, 단결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기업을 얻은 3지파가 다른 지파가 기업을 얻고 같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힘을 합쳐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먼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아직 구원얻지 못한 형제와 이웃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가나안 복지 천국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복음화와 세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싸움에 앞장 서게 하옵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선교 사역에 역사하시고 가정 위에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3:26)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40년 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바로 눈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구하옵나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 강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 저 편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요단을 건너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절당한 이유는 한번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으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민 20:10)하고 망언을 한 것입니다. 또 반석을 두번 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으나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애를 받는 지도자라고 해서 망언을 하거나 “우리가 내랴” 화를 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쳐도 좋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다고 해도 불평을 해서는 안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우리의 언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태도를 주옵소서. 유병세 선교사(일본)의 사역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4:2)

하나님은 ‘말씀대로 준행하면 살 것이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9절에 보면 바알브올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며 그 여인들을 따라 브올 지방의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로 염병이 번지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와 계명에 신실했던 자들은 살아 남아 있다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계명은 구원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법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유일한 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올바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신과 인간과의 가까운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또 이 법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자녀들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야겠습니다.

▶기도/하나님 말씀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준교 선교사(애굽)의 선교의 장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호렘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4:15)

호렘산에서의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알려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기 위하여는 호렘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과 연관을 지어야 하며 이 사건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호렘산 체험에서 새롭게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자녀에게 전하는 것은 과거의 회상이 현재화되는 것이며, 이것이 전승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엄위하신 명령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들려왔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이 장면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모두 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 하지 맙시다.

▶기도/어떤 우상도 우리 가까이 두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에도 두지 말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4:31)

처음에는 우상 숭배만 언급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금하고 처벌이 따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훈이 그들의 민족 전체와 자손대대로 이어질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그 땅을 소유한 뒤에라도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상 숭배는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며 그곳에서 많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에 가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어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위험과 그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다시 뵈올 수 있으며 용서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므로 버리지도 않으시며 다 멸하지 않으시고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알고 순종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를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 충만케 하소서.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4:32)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끌어 가는 요인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감사와 소망입니다. 감사는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나오는 것이며 소망은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감사와 소망 가운데 어느 편을 더 치중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제2세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 보상을 말하지 않고 “너희는 상고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는 마음, 눈물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였습니다(고후 5:14 참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눈물로 감사하십시오.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의 믿음이 나옵니다.

▶기도/주님, 구속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호기 선교사(독일)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은 ……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4:46-47)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장소는 과거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은 땅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장소는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해서 광야를 다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일부를 점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주고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겠노라'고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 즉 세상을 다 이겨 놓으신 후 그 승리의 땅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계명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이렇게 살 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기대가 많듯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박행렬 선교사(서사모아)에게 강건함과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5:10)

사람은 천성적으로 규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법에 까지 가까이 가려고 애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니까 어디까지가 간음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하니까 얼마짜리 까지 훔치면 도둑질로 처벌 받는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니까 언제부터 안식일이냐? 새벽 0시부터냐 아니면 해 뜰 때부터냐 따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 범죄인가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마 22:37-39).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아래로 사람에 대한 사랑. 만약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 24시간 뿐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없이 법조문을 지키기위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였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돈 일전도 훔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나누어 주지 않았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되 그 정신을 따라 지킵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13:10)

▶기도/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충만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와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5:25)

하나님은 시뻘겋게 불타고 연기가 옹기 가마처럼 피어오르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다시 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몽땅 다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길입니다. 죄 있는 인간으로서 그 앞에 서서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중보자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그 일을 모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 놓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 구속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청지기 훈련이 은혜안에 이루어 지게 하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6:5)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행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신 6:3)

특히 4절 이하의 쉼마 본문은 (쉼마는 “들으라”의 뜻으로 후에 유대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후에 랍비 규칙에 의하면 아침과 밤에 암송되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가르치며, 항상 강론할 뿐 아니라 몸(신체)과 집 문설주 등에 까지 기록해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므로 병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잊지 말고』(6:12)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약속과 함께 재다짐을 받으십니다. 희망적인 약속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수고 하지 않은 풍성한 소유를 얻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시면서 까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 출애굽하여 오늘 이 가난한 땅을 목전에 두는 때까지, 그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규례를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신 6:24, 25)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날 자신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리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은혜를 잘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나는 지난 날 우리 가족과 내 자신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그 말씀에만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기도/ 항상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교회가 돕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멸할 선교회와 장애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소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7:6)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갔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쫓아내실 계획인데, 그들에 대해 단호하게 성별되이 행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언약도 말고, 가족 관계도 맺지 말고 동정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경하실까요? 왜 이방신들을 찍으며 불사르라고 하시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미리 막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보다 잘못된 이방신들을 섬기는 올무가 될까봐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서서서 이방 민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잘못된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세속적 문화에 영향을 받기 보다 오히려 변혁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규범인 성경 말씀의 원리를 좇아 고난스런 순례자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야겠습니다.

▶기도/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금요 특별 집회 위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8:2)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재산도 풍부해지면 지난 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릴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혜의 때를 잊지 말고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한 명분과 뜻이 있습니다. 그 때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날 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며 인도하신 것은 다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시켜서 복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다. (3절)

▶지난 날을 뒤돌아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풍요로움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도/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소서.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9:4)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 노력의 결과라고 자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강대한 이방 족속이 쫓겨나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 공로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래도 의로우니까 당연히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4절) 고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악함을 보시고 그 공의를 나타내셔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6절)

▶ 겸손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당연히 자격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93년 1월을 보내면서 올 한해 겸손히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다시 한 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달에도 함께하신 주님, 2월에도 함께하소서.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 날의 기도와 그 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